

A Study of the Commemoration of Social Loss after a Collective Traumatic Event

- Focused on Sewol Ferry Disaster in Korea -

Hee Jeong Moon^{1#}, Hye Sun Joo¹, Soo Sang Lee², Hyun Nie Ahn¹⁺

¹ Departmen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52, Ewhayeodae-gil, Seodaemun-gu, Seoul, Korea

² Department of Library, Archive and Information Studies, Pusan National University, 2, Busandaehak-ro 63beon-gil, Geumjeong-gu, Busan,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ommemoration responses to a social loss after a collective traumatic event using the case of commemoration services for the Sewol ferry disaster in Korea. In particular, this study compared the commemoration responses to the accident between its first and second anniversary. For this purpose, newspaper articles regarding the memorial services for the Sewol ferry disaster were collected to draw 25 most frequent topics through topic modeling method. The most crucial topic was found to be "shared collective memories about loss". The major topics on its first anniversary were related to the memory of the victims, while the topics on the discovery of the truth about the accident increased relatively more during the second anniversary. These results demonstrated that the social environment in which one can feel free to share loss-related stories with others is critical for fast recovery from social losses.

Key words: collective traumatic event, social loss, commemoration, anniversary reaction, Sewol ferry disaster

1. 서론

개인이 경험하는 주관적 삶의 위기를 비롯하여 전쟁, 재난, 테러와 같이 광범위한 물리적, 환경적 손실을 초래하는 크고 작은 트라우마 사건은 필연적으로 상실(loss)을 유발하며, 상실이란 '개인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어떤 대상에 가까이 할 수 없게 되거나 혹은 더 이상 어떠한 가치나 목적을 추구할 수 없게 되는 실제적 혹은 잠재적 인 상황'으로 정의할 수 있다(Carlson & Blackwell,

1978). 이때 발생할 수 있는 상실의 종류는 가까운 대상의 상실로부터 대규모 인명 피해, 재산 손실, 삶의 터전이나 삶에 대한 의욕의 상실, 혹은 사건 이후에 경험하는 트라우마 증상 등으로 인해 심리적 안녕감을 상실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특히 트라우마 사건으로 인한 가까운 대상의 상실, 즉 개인적 상실(personal loss)을 경험한 이후에는 이에 대한 감정적, 인지적, 기능적, 행동적 반응인 애도(grief)를 경험하게 된다. Kast(1988)는 애도를 '상실로 인해 충격

The 1st author: Hee Jeong Moon, Tel. +82-2-3277-2638, e-mail. tofreeway@naver.com

+ Corresponding author: Hyun Nie Ahn, Tel. +82-2-3277-2643, Fax. +82-2-3277-4010, e-mail. ahn12@ewha.ac.kr

을 받은 사람의 삶에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고 새로운 자기와 세계에 대한 체험을 이루게 하는 감정'이라고 정의했는데 이를 통해 애도란 상실을 수용하고 이에 대처하며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Bachmann (1964)은 가까운 대상의 상실 이후의 애도 반응에 대해 보다 자세히 언급했는데 그에 따르면 대상 상실 이후 주변인이 겪을 수 있는 신체적 증상으로는 충격으로 인한 복통, 두통, 울렁거림, 심장의 두근거림 등이 있으며 인지적으로는 일시적인 지남력 상실을 경험할 수 있다. 또한 심리적으로는 망자에 대한 죄책감, 상황에 대한 적개심, 떠나간 사람에 대한 원망과 그리움을 동시에 보이는 양가감정 등을 보이는 것이 가까운 대상의 상실 이후 주변인들이 보일 수 있는 일반적인 반응이다.

한편 상실 이후 애도 과정의 연장선상에서 '추모(Commemoration)'의 개념 역시 설명할 수 있다. 추모의 사전적 의미는 '중요한 인물이나 사건의 상실에 대해 함께(com) 기억하고 기념(memoration)하는 것'이다. '애도'가 상실에 뒤따르는 자연스러운 감정적, 인지적, 기능적, 행동적 반응을 일컫는다면, '추모'는 일반적으로 애도의 과정을 담고 있으며 애도를 담아내는 의식적인 행위를 나타낸다. 대부분의 문화권에서는 상실 이후 애도 의식으로서 장례식, 기도, 제사 등과 같은 개인적 범위의 추모를 행하는데 만약 상실한 대상이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인물이라 할지라도 사회적으로 크게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이거나 상실을 유발한 사건이 사회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사건일 경우 그러한 '사회적 상실(social loss)'로 인해 영향을 받는 공동체 전체가 이를 애도하는 사회적 범위의 추모를 행하기도 한다. 가령 2016년 11월에 브라질 프로축구 팀 사페코엔시 선수 등 81명을 태운 비행기가 추락하여 대부분의 승객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세계 각국의 SNS(Social Network Service) 사용자들이 프로필에 근조 리본을 게시하거나 추모 게시물, 사진, 동영상 등을 남기는 행위를 한 것은 전 세계인의 애도를 표출하는 추모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까지 전 국민에게 집단적 영향

을 미친 다양한 집단 트라우마 사건이 발생해왔다. 그 중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사건은 현재까지 단연코 가장 충격적인 집단 트라우마 사건이자 사회적 상실을 유발한 사건 중 하나로 기억될 것이며 아직까지 전 국민적 추모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세월호 사건으로 인한 상실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세월호 사건 생존자나 유가족들뿐만 아니라 사건을 간접적으로 경험한 일반인들 역시 트라우마 반응을 보이고 있고 실제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다. 그 중 세월호 사건이 경기도 지역 중·고등학생들에게 미친 심리적 영향력을 살펴본 연구에서는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닌 이들 역시 사건으로 인한 슬픔과 분노를 경험했으며 이 중 55.7%가 간접적인 트라우마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집단에 속하는 것을 확인하였다(Sohn, 2014). 이와 비슷하게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간접 외상 연구에서도 대학생들 역시 세월호 사건 이후 분노, 슬픔, 우울 등을 경험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Jeong, 2015), 이외에도 언론 등을 통해 세월호 사건에 노출됨으로써 일반 대중들이 세월호 사건 이후의 심리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밝힌 연구결과들이 있다(Lee, et. al., 2016; Cho, et. al., 2015).

이처럼 세월호 사건이 대중에게 미친 심리적 영향력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사건 이후에 유가족의 트라우마와 애도 반응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경험하는 감정적, 인지적, 기능적, 행동적 반응에 대해서도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과학 분야에서 애도 과정이 집단의 의식적 행위로 표출되는 추모 반응에 대한 연구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세월호 이전에 한국 사회에서 발생한 트라우마 사건들에 대한 대중들의 추모 반응 연구는 거의 전무하며, 세월호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세월호 사건 이후 사회적 참여와 관련하여 추모의 형태를 조사한 연구와(Shim, et. al., 2015) 대학생의 세월호 참사 추모 활동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가 있었다(Han, et. al., 2017). 또한 Moon, et. al.(2016)의 연구에서는 세월호 사건으로 인한 상실의 반응이 추모 행사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살펴봄으로

써 세월호 추모에서 빈번히 드러나는 주제나 감정을 확인하였으나 현재까지는 사회적 상실 경험 이후의 집단 애도 과정인 추모 현상과 관련한 연구 진행은 미미한 실정이다.

또 한 가지 사회적 상실 이후의 반응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외상 반응의 특성 상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상이 재발하거나 뒤늦게 상실에 대한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Horowitz & Solomon, 1975; Heart, 1999; Yehuda & LeDoux, 2007). 이에 외상 사건 이후의 심리적 반응에 대한 종단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국내 연구 중 재난 사건 이후 외상 반응에 대한 종단적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못했다. 이는 재난 이후 외상 반응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진 것이 세월호 참사 이후이고,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3년가량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아직 본격적인 종단 연구가 행해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지만 향후에는 외상 반응을 종단적으로 추적하여 그 변화 추이를 살필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외국의 집단 트라우마 사건 이후 트라우마 반응에 대한 연구에서는 주로 ‘기념일 반응(Anniversary Reaction)’에 초점을 두고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들의 상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추적하는 종단 연구들이 실시되었다. 기념일과 관련된 반응은 Freud & Breuer(1895)가 최초로 제시하였으며 그는 임상 현장에서 과거 재난을 겪은 날과 동일한 날에 그 사건과 관련된 생생한 시각적 경험과 당시의 느낌을 재경험하는 여성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이러한 반응에 대해 사건이 발생할 당시 완벽하게 소화되지 못한 외상을 해결하려는 노력이라고 보았다(Freud, 1920). 이후 ‘기념일 반응’이라는 용어는 Hilgard(1953)가 처음 사용했으며 그는 기념일 반응을 경험하는 환자들은 그들에게 중요한 사람들의 죽음과 관련된 날에 특정한 기념일 반응을 보이며 Freud(1920)의 관점과 비슷하게 이는 그 사건과 관련된 해결되지 못한 갈등에서 비롯된 심리적·정신적 반응이라고 보았다. 이와 같이 기념일 반응이란 주로 트라우마를 일으킨 사건과 관련된 기념일에 트라우마 사건과 관련된

이미지나 생각의 침습, 사건에 대한 지속적인 회피, 무감각, 과격 행동이나 수면 문제 등과 같은 트라우마 반응이 활성화 되는 현상이다. 또한 트라우마 사건과 관련된 기념일에는 불안감, 절망감, 좌절감 등과 같은 심리적 반응이 재경험 될 수 있으며 신체적 증상을 보일 수 있다(Jordan, 2003). 이러한 신체적 증상과 관련하여 Gabriel(1992)은 기념일 반응을 겪는 환자들이 평상시에 비해 트라우마 사건과 관련된 기념일에 많은 감기, 대장염, 궤양 등의 신체적 문제를 빈번히 경험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Cavenar, *et. al.*(1977, 1978) 역시 기념일 반응의 대표적인 신체적 증상으로 심혈관 질환이나 두통 등을 언급했는데, 이러한 신체적인 기념일 반응의 지속 기간은 1년부터 42년까지 다양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Bornstein & Clayton(1972)은 배우자를 사별한 92명을 미망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그들이 배우자 사망 후 1주기가 되는 기념일에 평소에 일상적으로 경험하지 않는 두통, 복통 등의 신체적 증상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단일 기념일에 보이는 반응에 대한 연구를 넘어서서 기념일 반응과 관련된 경험적 종단 연구에서 Morgan, *et. al.*(1998, 1999)은 베트남 참전 용사들이 전쟁에서 겪은 특정 트라우마 사건의 2년과 6년 이후의 기념일 반응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두 기념일 시점에서 모두 일상생활에 비해 2배 이상의 트라우마 반응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트라우마 사건 이후 시간이 지난다 할지라도 트라우마 반응이 완벽히 사라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내포한다. 보다 최근의 연구 중 재난과 관련된 기념일 연구에서는 9/11 테러 관련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데 9/11테러 이후 일주일, 1개월, 1년, 2년 이후의 시기에 각각 일반인들의 공격성, 타인에 대한 편견, 타인에 대한 동질성을 조사한 연구에서 공격성의 경우 9/11 테러 당시에는 크게 상승하였으나 이후 점차 감소하였고 1년 이후 시점에는 다시 상승했지만 2년 이후 시점에는 상승하지 않았다. 그리고 타인에 대한 편견 점수는 매 시기에 큰 변화가 없었으며 타인에 대한 동질성 인식 부분에서는 사건 발생 이후 2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Argyrides & Downey, 2004). 또한 9/11테러 이후 정신건강 재난 구조 요원들의 외상 후 노출 기념일 반응을 살펴본 결과 사건 발생 이후 6개월 시점과 비교하여 1주기가 되었을 때 상대적으로 더 부정적인 기분과 기능적 손상이 있음이 보고되었다(Daly, *et. al.*, 2008). 이와 더불어 Assanangkochai, *et. al.*(2007)이 태국 내 네 개의 다른 지역에 분포하는 590명의 태국 홍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기념일 반응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들은 사건 발생 이후 각 종단적 시점마다 점진적으로 외상 증상이 감소했지만 12개월째 되는 날에 갑자기 건강 문제가 악화되었다고 응답했다. 특히 조사한 네 개의 지역 중 더 큰 피해를 입은 지역민일수록 기념일에 유난히 외상 증상의 발현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추모 반응과 기념일 반응에 대한 선행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먼저 트라우마 사건 이후의 상실에 대한 애도를 사회적으로 표현하는 추모 행위가 어떠한 양상으로 진행되는지 살펴보고자 하며, 이에 비교적 최근에 발생한 집단 트라우마 사건인 세월호 사건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사례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추모 행위가 상실 이후의 심리사회적 회복에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연구에서는 추모 반응에 대한 기초적 연구의 일환으로 세월호 추모 행위에서 주요하게 등장하는 주제들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대중이 보이는 추모 반응 양상을 확인할 것이다. 이후 추모 양상에 대한 종단 연구를 위해 추모 행사에서 드러나는 주요 주제들의 등장 비율이 사건 발생 이후 월별로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패턴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기념일 반응과 관련하여 사건 발생 이후 1주기와 2주기 기념일이 있었던 달의 추모 반응 패턴을 확인하여 기념일에는 어떤 반응이 우세한지 살펴보고 1, 2주기 기념일 반응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분석 방법

이 연구는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의 한 세부방법인 토픽모델링(topic modeling)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텍스트 마이닝은 비정형의 텍스트 데이터에서 유용한 정보를 찾아내는 텍스트 분석 기술이며, 빈도분석, 시각화, 네트워크분석, 기계학습 등을 포함한다. 토픽모델링은 주어진 언어 텍스트의 집합을 대표하는 주제범주를 식별하는데 사용하는 방법이며, 언어 텍스트인 문서(documents)의 집합(collection)에서 토픽(topics)이라는 유용한 정보를 발견하는 기계학습의 한 방법이다(Wikipedia: Topic model). 문서집합에 대한 일종의 주제색인 방법으로는 잠재의미색인(LSI, Latent Semantic Indexing), 확률적 잠재의미색인(PLSI, Probabilistic Latent Semantic Indexing), 잠재 디리클레 할당(LDA, Latent Dirichlet Allocation) 등의 기법들을 활용한다. 최근의 토픽모델링에서는 LDA 기법을 기초로 LDA를 변형한 다양한 기법들까지 사용하고 있다(Lee, 2016).

주어진 문서집합에 대하여 각 문서에 존재하는 토픽, 문서집단 전체에 존재하는 주제를 확률적으로 판단하는 LDA 기법의 토픽모델링은 다음과 같은 원리로 설명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주제의 문서를 작성할 경우, 문서의 주제와 세부주제들을 구상하고 각 세부주제들을 구성하는 단어들을 동원하여 문서의 내용을 구성하게 된다. 즉, 문서-토픽-단어의 관계를 형성한다. 이러한 문서작성 원리에 역순으로 문서집합의 각 문서마다 등장하는 단어들을 추출하고, 특정한 단어들로 구성되는 토픽을 파악하고, 파악된 토픽들에서 문서의 토픽을 추정한다.

이 연구에서 LDA 기법의 토픽모델링을 실제로 적용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분석대상의 전체 N개 문서들로 코퍼스를 구성한다. ② 한글형태소 분석 방법을 통해 문서의 주제적 특성을 나타내는 주요한 단어(키워드)들을 추출한다. ③ 추출된 각 단어들로 전체 V개의

고유한 단어들의 집합인 어휘(vocabulary)를 구성한다. ④ 문서와 어휘의 출현빈도를 구하여, 문서-단어의 행렬(DTM, document-term matrix)을 생성한다. ⑤ 각 문서에 등장하는 단어들의 조합관계를 통해 LDA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K개의 토픽을 배당한다. ⑥ K개 토픽을 구성되는 단어들의 집합을 구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얻어지는 결과는 N개의 각 문서에 대한 K개의 토픽의 행렬($N \times K$ 행렬), K개 토픽에 대한 V개 단어들의 행렬($K \times V$ 행렬)이다(Lee, 2016).

2. 분석 대상

분석 대상으로 사용된 신문 기사는 웹 사이트 분석 평가 서비스 업체 Internet Trend TM (www.ineternettrend.co.kr)의 분석에 따라 뉴스·미디어 카테고리에서 포털 사이트 점유율이 가장 높은 포털 사이트 네이버(www.naver.com)를 통해 수집하였다. 기사 수집 기간은 사건 발생 직후인 2014년 4월 16일부터 사건 발생 2주기가 있었던 달인 2016년 4월 30일까지로 한정하였으며, 이 기간 내에 네이버 뉴스·미디어 카테고리에서 ‘세월호 추모’를 검색 키워드로 설정하여 검색된 신문 기사들을 선정하였다. 그러나 단일 행사에 대한 중복된 기사들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시켰는데, 단일 추모 행사에 대한 기사가 두 개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기사 내용의 단어 수가 더 많은 기사를 채택하여 분석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한 신문 기사 내용 중 제목과 소제목을 제외한 기사 본문만을 분석했으며 이에 최종적으로 605개의 기사 본문 내용을 분석 대상으로 채택하였다.

3. 분석 절차

605개의 기사 본문 내용에 대한 토픽모델링 분석은 크게 전처리 과정과 LDA 함수의 적용 과정으로 구성된다. 전처리 과정에서는 각 기사의 본문에서 키워드에 해당되는 단어들을 선정한다. 이 작업은 R에서 제공하는 한글형태소 분석기인 “KoNLP”패키지를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선정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605건의 신문기사 문서를 대상으로 명사 단어를 추출한다.

둘째, 추출된 명사들을 대상으로 코퍼스를 생성한다. 셋째, 코퍼스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정제작업(불용어 제거, 동의어/약어 처리, 숫자/특수기호 제거 등)을 수행한다. 넷째, 문서-단어의 행렬(DTM, document-term matrix)을 생성한다. 다섯째, TF-IDF 가중치 기법을 적용하여 단어들을 축소한다.

LDA 함수의 적용은 “topicmodels”라는 R 패키지를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적용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적의 토픽수 K값을 결정한다. Meza 알고리즘(Meza, 2015)을 활용하여 K값을 25로 산정하였다. 둘째, LDA 함수의 관련 파라미터를 설정한다. K값 55, Gibbs 샘플링 기법 선택, 반복횟수 2,000회를 설정하였으며, 다른 인수들은 함수에서 제공하는 기본값을 적용하였다. 셋째, 토픽모델링 분석결과 2가지 행렬 데이터를 확보한다. 25개의 토픽과 구성단어(TOP30)로 구성되는 데이터와 605건의 기사문서와 25개 토픽의 분포비율을 나타내는 데이터이다.

III. 연구결과

1. 전체 토픽 분포

전체 기사 605건을 분석하여 총 25개의 하위 토픽(T; Topic)을 추출하였으며, 공통된 속성을 가진 하위 토픽들을 하나의 범주로 묶어 총 10개로 분류된 중범주 토픽(M; Middle Topic)으로 분류하였고 다시 공통된 속성을 가진 중범주 토픽들을 하나의 범주로 묶어 총 3개의 상위 범주 토픽(H; High Topic)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하위 토픽과 중범주 토픽의 분포 결과를 중심으로 결과를 분석할 것이며 전체 토픽 분류는 <Appendix 1>에 제시하였다. 또한 전체 하위 토픽과 중범주 토픽의 등장 비율 분포 결과는 각각 <Figure 1>과 <Figure 2>에 그래프로 제시하였다.

먼저 조사 대상이 된 605건의 기사로부터 추출된 25건의 하위 토픽의 등장 비율을 살펴본 결과 각 하위 토픽들의 등장 비율은 3.66%에서 4.51% 범위 내에서 분포하고 있었다. 이 중 가장 많이 등장한 상위 3건의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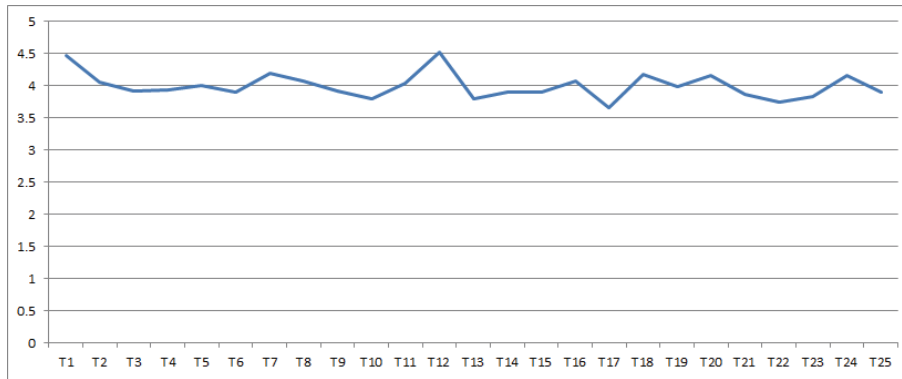


Figure 1. Topic distribution of total articles

위 토픽은 ‘교육청 주관 희생자 추모 기간 지정(T1)’, ‘희생자 추모를 위한 연예인 재능 기부(T7)’, ‘추모 집회에서 시민과 경찰 간의 충돌(T12)’ 순으로 나타났다. 이때 ‘교육청 주관의 추모 기간 지정(T1)’은 주로 세월호 1, 2주기 기념일을 맞아 도교육청에서 관할 초·중·고등학교에 자율적으로 세월호 사건을 추모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 포함된 추모 주간을 지정하도록 한 것과 관련된 내용이며, ‘추모 집회에서 시민과 경찰 간의 충돌(T12)’과 관련된 기사는 서울시 광화문 광장이나 청계천에서 개최된 대규모 촛불 집회에서 경찰과 시민들이 충돌한 사건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희생자 추모를 위한 연예인 재능 기부(T7)’는 탤런트, 배우 및 가수들이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 자신들이 직접 영상작품이나 추모곡을 제작하거나 혹은 추모 공연을 개최한 것과 관련된다.

반면 가장 적은 비율로 등장한 하위 3건의 토픽은 ‘국내외 스포츠 구단의 세월호 1주기 희생자 추모 퍼포먼스(T17)’, ‘고등학생들의 세월호 2주기 추모 문화제(T22)’, ‘유가족 합창단이 참여한 추모 음악회 및 추모 모금 활동(T10)’ 순이었다. 이때 ‘국내외 스포츠 구단의 희생자 추모 퍼포먼스(T17)’는 세월호 사건 기념일을 맞아 각 스포츠 구단이 경기 시작 전에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퍼포먼스를 하거나 특정 스포츠 구단이 구단 홈페이지에 희생자 추모 메시지를 게재하는 것과 관련된 토픽이다. 다음으로 ‘고등학생들의 세월호 2주기 추모 문화제(T22)’는 세월호 2주기를 맞아 중·고등학교의 축

제 등에서 희생자 추모 공연을 개최한 내용과 관련된 토픽이며 ‘유가족 합창단이 참여한 추모 음악회 및 추모 모금 활동(T10)’은 유가족이 포함된 416합창단이 추모 음악회를 개최하며 모금 활동을 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으로 공통된 속성을 가진 하위 토픽들을 하나의 묶음으로 분류한 10개의 중범주 토픽의 등장 비율 분포를 살펴본 결과 가장 빈번히 드러난 3개의 중범주 토픽은 순서대로 ‘일반 시민의 희생자 추모 활동(M1)’, ‘세월호 사건 추모 및 기억을 위한 문화 예술인의 활동(M4)’, ‘유가족 주최 및 참여 추모 활동(M5)’ 이었다. ‘일반 시민의 희생자 추모 활동(M1)’은 일반 시민들이 세월호 사건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한 추모 활동과 관련된 내용이며, ‘세월호 사건 추모 및 기억을 위한 문화 예술인의 활동(M4)’은 연예인이나 예술인들이 세월호 사건과 관련된 문학, 음반, 영화, 공연 등의 방법으로 세월호 사건을 추모한 것과 관련이 있는 중범주 토픽이다. 마지막으로 ‘유가족 주최 및 참여 추모 활동(M5)’은 희생자의 부모 혹은 형제·자매가 희생자를 추모하는 활동과 관련된 내용이다. 특히 위 세 개의 중범주 토픽 모두 동일한 상위 범주 토픽인 ‘상실에 대한 집단 기억의 공유(H1)’에 해당되는 중범주 토픽에 해당한다.

반면 중범주 토픽 분포에서 가장 적게 드러난 토픽은 ‘공공기관의 세월호 추모 관련 활동(M10)’, ‘세월호 추모 행사에서 경찰과 시민의 충돌(M8)’, ‘정부의 사건 대응과정을 비판하는 시민들의 추모 행사(M7)’ 순으로 나타났다. 이때 ‘공공기관의 세월호 추모 관련 활동(M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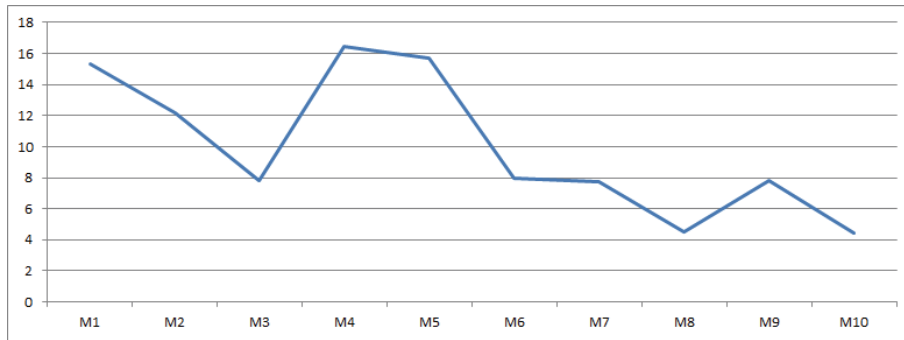


Figure 2. Middle topic distribution of total articles

는 교육청이 주관한 세월호 추모 행사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추모 집회에서 시민과 경찰간의 충돌(M10)’은 대규모 추모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과 경찰이 대치하는 것과 관련된 토픽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사건 대응과정을 비판하는 시민들의 추모 행사(M7)’는 국내외에서 열린 추모 집회에서 특히 정부의 사건 대응 과정에 대해 비판하는 주제를 전면에 드러내는 추모 행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2. 월별 토픽 분포

다음으로 전체 605개 기사의 하위 토픽과 중범주 토픽의 등장 비율 분포를 2014년 4월부터 2016년 4월까

지 한 달 단위로 분석한 결과를 각각 <Figure 3>과 <Figure 4>에 제시하였다.

월별 하위 토픽 분포를 살펴본 결과 모든 토픽이 상대적으로 전월에 비해 많이 증가한 시기는 2014년 8월, 사건의 1주기가 있었던 2015년 4월, 사건의 2주기가 있었던 2016년 4월이었다. 특히 2015년 4월의 경우 2015년 1월부터 꾸준히 전체 하위 토픽 등장 비율이 증가하다가 2015년 4월에 토픽 등장 비율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2016년 역시 2016년 3월부터 전체 토픽의 증가가 시작되었고 4월에 토픽 등장 비율이 확연하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총 605건의 기사 중 2015년 4월의 추모 활동 기사가 245건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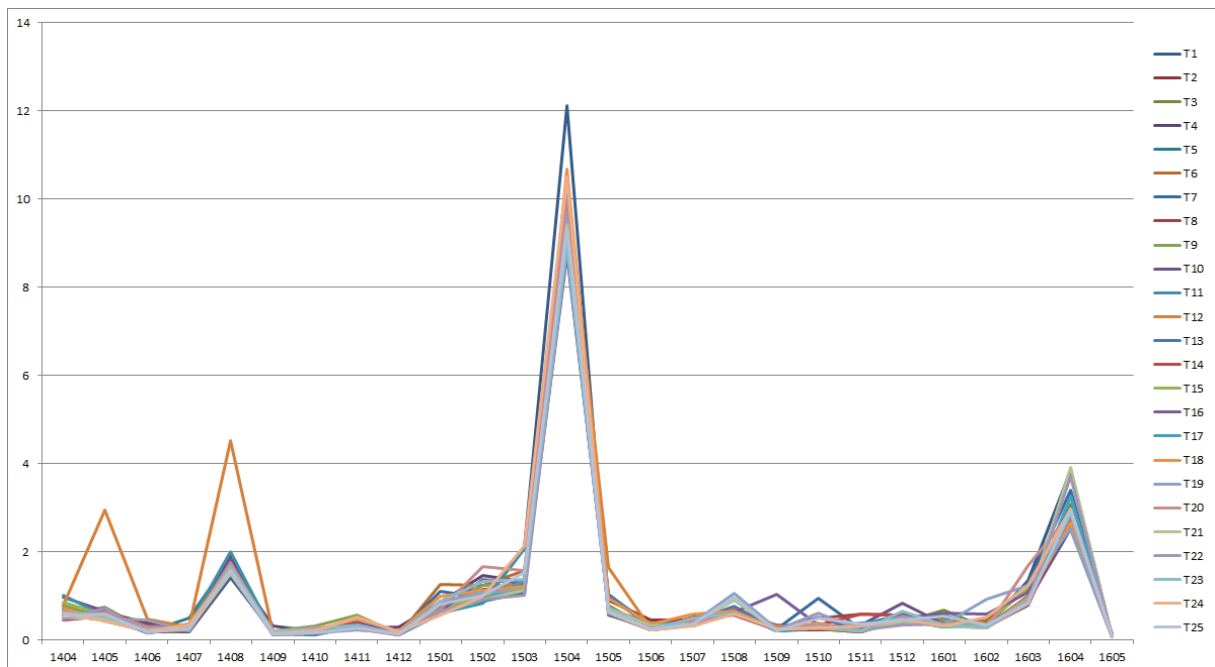


Figure 3. Monthly topic distribu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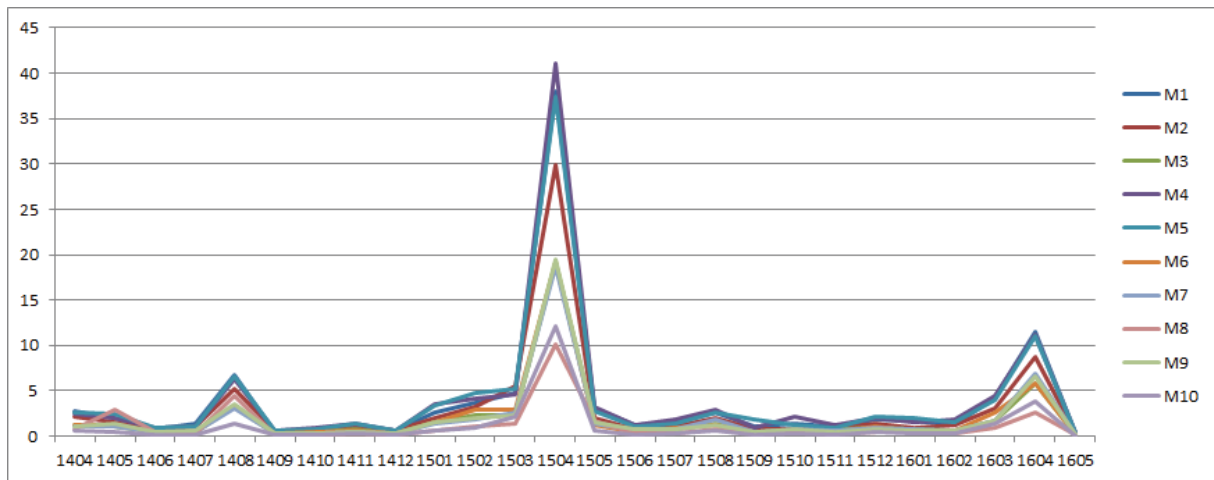


Figure 4. Monthly middle topic distribution

로 전체의 40.5%를 차지하여 전체 월별 기사 빈도수 1 위였고 2016년 4월의 기사 빈도수가 74건으로 12.2%를 차지하여 그 뒤를 이은 것과 연관지어 볼 때, 이 시기에 증가한 추모 활동과 관련된 기사 수로 인해 토픽의 수 역시 함께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4년 8월에는 특별한 기념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달에 비해 토픽 등장 비율이 월등히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이 시기의 추모 활동에 대한 기사 수는 4건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토픽이 등장했는데, 이는 대체로 특별법 제정 논란과 관련하여 유가족의 단식 농성 및 시민들의 대규모 집회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기사들에서 추출된 토픽들이다.

특징적으로 ‘추모집회에서 시민과 경찰 간의 충돌(T12)’ 토픽 분포는 대부분 유사한 흐름을 보였던 여타 하위 토픽 분포 패턴과 차이가 있었는데 T12는 다른 토픽들의 등장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2014년 5월에 다른 토픽들에 비해 두드러지게 높은 등장 비율을 보였다. 또한 2014년 8월에는 모든 토픽들의 등장 비율이 전월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하긴 했지만, T12의 등장 비율은 여타 토픽의 등장 비율보다 2배 이상 높았다. 그러나 모든 토픽의 등장 비율이 급격히 증가했던 2015년 4월과 2016년 4월에 T12의 등장 비율은 다른 토픽들과 비교하여 평균적인 수준이었다.

중범주 토픽의 월별 등장 비율 분포 역시 하위 토픽 분포와 유사한 패턴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하위 토픽

분포와 마찬가지로 전월에 비해 중범주 토픽 분포가 눈에 띄게 증가한 달은 2014년 8월, 2015년 4월, 2016년 4월이었다. 또한 2015년의 경우 2015년 1월부터 꾸준히 토픽 수가 증가하다가 2015년 4월에 토픽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점과, 2016년 3월부터 토픽 등장 비율이 증가하여 4월에 토픽 수가 확연하게 증가한 것 역시 하위 토픽 분포와 동일한 패턴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하위 토픽 분포에서는 여타 토픽 패턴과는 다른 독특한 패턴을 가지는 토픽(T12)이 존재했던 것과는 달리 중범주 토픽 분포에서는 눈에 띄게 두드러지는 패턴을 보이는 특정 토픽이 존재하지는 않았다.

3. 1, 2주기 토픽 분포

이번에는 기념일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월별 토픽 분포 중 세월호 1주기 기념일이 있었던 2015년 4월과 2주기 기념일이 있었던 2016년 4월의 토픽 분포를 살펴보고, 1, 2주기의 하위 토픽 분포와 중범주 토픽 분포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이에 대한 하위 토픽과 중범주 토픽의 비교 분석 결과는 각각 <Figure 5>와 <Figure 6>에 제시하였다.

먼저 1, 2주기가 있었던 달의 하위 토픽 분포를 비교해본 결과 1주기에 비해 2주기 토픽의 등장 비율이 확연하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1주기에 개최된 추모 행위와 관련된 기사 빈도수가 245건이었던데 비해 2주기의 추모 기사의 빈도가 74건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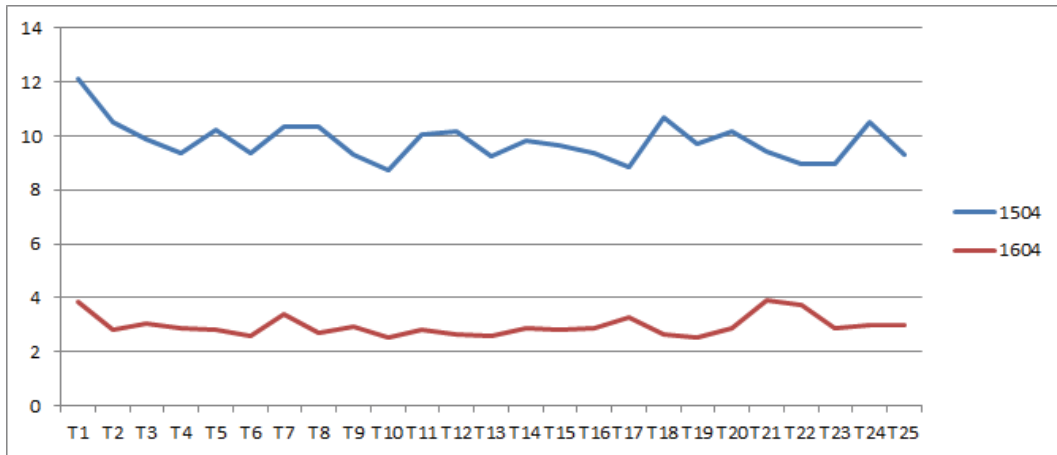


Figure 5. Topic distribution of 1st and 2nd anniversary

크게 줄어든 만큼 기사에서 추출되는 토픽수도 이와 비슷하게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1, 2주기에 각각 가장 많이 등장하는 하위 토픽과 가장 적게 등장하는 하위 토픽 순위에는 차이가 있었다. 먼저 1주기 가장 많이 등장한 3개의 토픽은 ‘교육청 주관 희생자 추모 기간 지정(T1)’, ‘천주교 추모 미사(T24)’, ‘희생자 친구들의 추모 정기 음악 공연(T2)’ 순이었다. 이때 ‘천주교 추모 미사(T24)’는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천주교 행사와 관련된 토픽이며 ‘희생자 친구들의 추모 정기 음악 공연(T2)’은 세월호 희생자 박수현 군이 속했던 단원고 밴드 그룹이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열일곱살의 버킷리스트’를 주제로 홍대 롤링홀에서 정기 공연을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다. 반면 가장 적게 드러난 하위 토픽은 ‘국내외 스포츠 구단의 세

월호 희생자 추모 퍼포먼스(T17)’, ‘유가족 합창단이 참여한 추모 음악회 및 추모 모금 활동(T10)’, ‘경상도 지역 진상 규명 축구 문화제(T21)’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때 ‘경상도 지역 진상 규명 축구 문화제(T21)’는 양산, 진주, 창원 등에서 세월호 대책위원회가 주최하여 세월호 사건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추모 문화제가 개최된 것과 관련된 토픽이다.

한편 2주기의 토픽 분포는 1주기와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2주기에는 1주기에 등장 비율이 가장 낮았던 ‘경상도 지역 진상규명 축구 문화제(T21)’의 등장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1주기에 높은 등장 비율을 보였던 ‘교육청 주관 희생자 추모 기간 지정(T1)’과 ‘고등학생들의 세월호 2주기 추모 문화제(T22)’가 그 뒤를 이었다. 반면 2주기에 가장 낮은 등장 비율을 기록한 하위 토픽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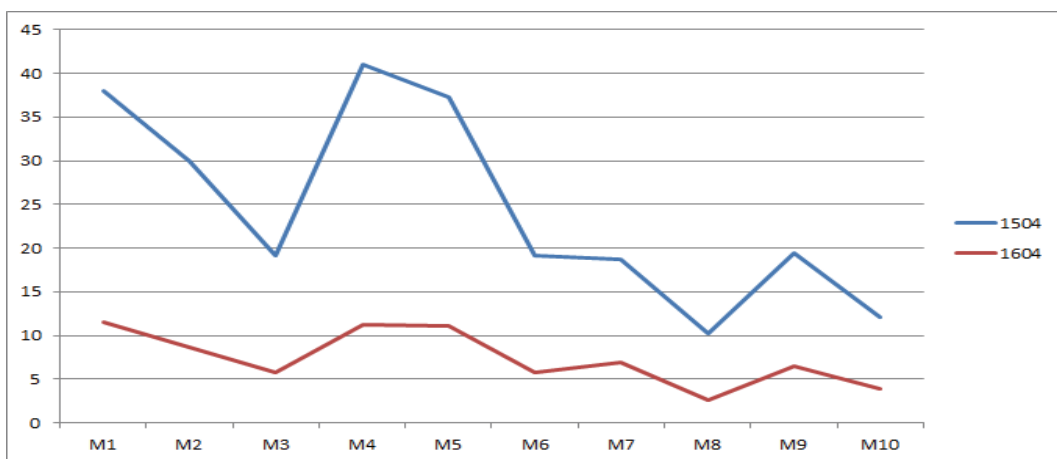


Figure 6. Middle topic distribution of 1st and 2nd anniversary

‘뮤지션들의 세월호 추모 음반 발매 및 공연(T19)’, ‘유가족 합창단이 참여한 추모 음악회 및 추모 모금 활동(T10)’, ‘희생자 추모를 위한 북콘서트(T6)’ 순으로 나타났다. 이때 ‘뮤지션들의 세월호 추모 음반 발매 및 공연(T19)’은 가수나 작곡가들이 세월호 사건을 추모하는 곡을 발표하거나 추모 행사 및 공연에서 추모곡을 부른 것과 관련되며 ‘희생자 추모를 위한 북콘서트(T6)’는 유가족이 포함된 416국민연대가 유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금요일엔 돌아오렴’이라는 책을 통해 전국에서 북 콘서트를 개최한 내용을 담고 있다.

1, 2주기 중범주 토픽 분포 결과 역시 하위 토픽 분포 결과와 마찬가지로 2주기의 중범주 토픽 등장 비율이 1주기 등장 비율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2주기 하위 토픽 등장 비율 감소의 원인과 마찬가지로 2016년 4월의 추모 기사 빈도수가 2015년 4월에 수집된 추모 기사 빈도수에 비해 1/3 이상 감소했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하위 토픽 분석 결과에서는 1, 2주기에서 드러난 토픽의 등장 비율 순위가 차이를 보인 반면 중범주 토픽 분포에서는 1주기와 2주기의 토픽 등장 비율 순위가 동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때 1, 2주기 모두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중범주 토픽은 순서대로 ‘세월호 사건 추모 및 기억을 위한 문화 예술인의 활동(M4)’, ‘일반 시민의 희생자 추모 활동(M1)’, ‘유가족 주최 및 참여 추모 활동(M5)’이었고,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두 상위 범주 토픽 중 ‘상실에 대한 집단 기억의 공유(H1)’에 포함되는 중범주 토픽들이었다. 반면 가장 적게 등장한 중범주 토픽은 ‘세월호 추모 행사에서 경찰과 시민의 충돌(M8)’, ‘공공기관의 세월호 추모 관련 활동(M10)’, ‘정부의 사건 대응 과정을 비판하는 시민들의 추모 행사(M7)’임을 확인하였다. 이때 ‘세월호 추모 행사에서 경찰과 시민의 충돌(M8)’과 ‘정부의 사건 대응 과정을 비판하는 시민들의 추모 행사(M7)’는 상위 범주 토픽 ‘사건의 원인 규명 및 대책에 관한 사회적 갈등(H2)’에 속하며, ‘공공기관의 세월호 추모 관련 활동(M10)’은 상위 토픽 ‘희생자의 속성과 연관성 높은 집단의 추모 활동(H3)’에 속하는 중범주 토픽이다.

IV. 논의

본 연구에서는 사회 구성원들이 집단 트라우마 사건으로 인한 상실 이후에 보이는 추모 반응 양상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비교적 최근에 발생한 국가적 상실이자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세월호 사건에 대한 사례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에 토픽모델링 방법을 사용하여 추모 행사를 주제로 한 신문 기사에서 자주 등장하는 토픽을 분석한 결과, 가장 빈번히 등장하는 하위 토픽은 교육청이 주관한 희생자 추모 행사와 희생자 추모를 위한 연예인들의 재능기부와 관련된 토픽이다. 이때 교육청과 연예인은 모두 대중에게 파급효과가 큰 집단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교육청의 추모 행사와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관청에서 진행되는 행사는 활발한 홍보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도 단위의 교육청이 추모 행사를 진행할 경우 각 도에 속한 대부분의 개별 학교에서 추모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토픽의 등장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세월호 희생자의 대부분이 수학여행을 떠났던 고등학생이었다는 희생자의 속성을 감안할 때, 희생자의 속성과 관련이 있는 교육청에서 더욱 활발한 추모 활동을 보였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연예인의 재능기부와 관련된 추모 활동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희생자를 추모하는 음악을 제작하여 배포하거나 추모 공연을 개최하는 것이었는데 이러한 연예인의 추모 방식은 일반인들이 추모 음악을 듣거나 추모 공연에 참석하여 타인과 함께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마음을 공유할 수 있는 수단과 공간을 제공하여 추모 활동을 더욱 확산시키는 기폭제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1994년 아르헨티나에서 발생한 폭탄테러사건으로 85명이 사망한 사건 이후, 가수들이 유대인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노래들을 발표하고 이를 통해 사람들을 실제적으로 결집시킬 수 있는 콘서트를 여러 번 개최함으로써 대중이 함께 할 수 있는 추모 공간을 마련하고 사건에 대한 기억을 나눌 수 있도록 한 것은(Aizenberg, 2007) 세월호 사건

이후의 추모 과정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교육청이나 연예인과 같이 일반인에게 파급효과가 큰 집단의 추모 활동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추모에 동참하여 상실 이후의 과정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가장 적게 드러난 토픽은 유가족이 참여한 추모 활동과 스포츠 구단의 추모 퍼포먼스였는데 이처럼 유가족이나 스포츠 구단과 같이 특정 소수 집단이 참여한 추모 행위는 교육청이나 연예인과 같이 파급효과가 큰 집단의 추모 행사에 비해 등장 비율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Moon, *et. al.*(2016)의 연구에서도 사회적 상실 이후 추모 활동의 주체가 되는 것은 일반 시민이며 유가족이 주체가 된 추모 행사는 그에 비해 미미한 수준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스포츠 구단의 추모 퍼포먼스 역시 주기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세월호 1, 2주기 기념일이나 사건 발생 시점에만 경기 중 추모 물품을 착용하거나 응원이 없이 경기를 진행한다면지, 혹은 구단 홈페이지에 추모 글을 게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지속적인 추모 행위를 이어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조한 토픽 등장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추모의 하위 토픽과 관련하여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다양한 추모 ‘주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추모의 ‘형태’들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 중 가장 두드러지는 추모 형태는 추모를 예술적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으로써, 이는 추모 물품 제작(T1), 추모 그림 전시회(T13), 추모 영화 제작(T8), 추모 공연(T2, T7, T10, T18, T19), 추모 음반 발매(T19), 추모 문학 작품(T6, T18)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를 통해 추모를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 예술의 중요성이 드러나는데 외국의 추모 활동 사례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가령 2017년 5월 가수 아리아나 그란데의 영국 콘서트 현장에서 맨체스터 아레나 폭탄 테러로 인해 22명이 사망하고 50명이 부상당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아리아나 그란데는 사건 발생 1달 이후 또 다시 맨체스터에서 희생자를 위로하는 추모 자선 콘서트를 개최하였다. 다시 개최된 콘서트를 통해 상실을 경험한 5만명 가량의 영국인이 함께 노래하며 희생

자에 대한 애도와 위로를 표현하고 상실을 공유할 수 있었던 것은 사회적 상실 이후에 추모와 치유의 수단으로써 예술이 가질 수 있는 힘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또한 상실 이후의 글쓰기는 현재의 고통에서 한 발짝 물러나 애도의 과정을 문학적 행위로 형상화하는 역할을 하며 나아가 문학의 언어를 통해 타인의 아픔을 극복하고 현실을 모순을 상징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Kwak, 2016). 실제로 세월호 사건 이후에 다양한 세월호 추모 도서가 출간되었고 도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북콘서트를 통해 대중이 함께 상실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될 수 있었으며, 9/11테러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테러 희생자를 추모하고 미국 대중을 위로하는 다양한 문학 작품이 출간되어 테러 이후 사람들이 느끼는 생각이나 정서에 대해 문학을 통해 소통할 수 있었다(Salamon, 2016). 이처럼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적 형태로 표현되는 추모 행위는 대중이 가장 가깝게 상실을 공유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이에 사회적 상실 이후에 예술을 수단으로 한 추모 활동을 장려하고 예술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추모 행사의 중범주 토픽과 관련하여 가장 빈번히 드러나는 토픽들은 일반 시민의 추모 활동, 문화예술인들의 추모 활동, 유가족의 추모 활동 순이었다. 이들은 모두 ‘상실에 대한 집단 기억의 공유(H1)’라는 상위 범주 토픽에 포함되는 중범주 토픽인데, 이를 통해 추모 과정에서 가장 주된 주제는 ‘사건에 대해 기억하고 기억을 함께 공유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세월호 추모 행사의 주된 구호가 ‘잊지 않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인 것 역시 사회적 상실 이후 추모 과정에서 상실의 공유와 기억이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 과정임을 보여준다. 사회적 상실 이후 이를 기억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과테말라 집단 학살, 러시아-체첸 전쟁, 9/11테러, 각종 자연 재난 등 외국의 여러 집단 트라우마 사건 이후 반응에서도 흔히 발견되는데 (Marín, *et. al.*, 2000; Williams, 2000; Forrest, 1993) 이러한 사례들은 대중들이 사건에 대한 추모 과정에서

집단적인 기억을 만들고 이를 통해 공감하고 서로를 위로하면서 상실을 회복해나가는 과정을 보여준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다음으로 세월호 2주기까지의 추모 토픽의 월별 등장 비율을 조사한 결과 등장 비율이 가장 높았던 달은 사건의 1주기였던 2015년 4월과 2016년 4월, 그리고 2015년 8월이었다. 먼저 2015년 4월과 2016년 4월의 경우 기념일 반응과 관련하여 다양한 정서적 반응을 불러일으켰을 가능성이 높고 사건을 기억하고자하는 취지로 여러 가지 추모 활동이 증가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토픽의 등장 비율이 증가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사건과 관련된 기념일이 있었던 달이 아닌 2014년 8월에도 전달에 비해 두드러지게 토픽의 등장 비율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 시기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유가족의 단식 농성과 시민들의 촛불집회가 활발했던 달이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다양한 토픽이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한 가지 눈여겨 볼 점은 다른 토픽들이 각 달에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증감하면서 월별로 각 토픽의 등장 비율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반면 ‘추모 집회에서 시민과 경찰간의 충돌(T12)’는 다른 토픽들과 다른 증감 양상을 보인다는 점인데, 대부분의 토픽이 비슷한 등장 비율을 보였던 2014년 5월과 2014년 8월에 T12의 등장 비율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4년 5월은 세월호 유가족 및 다수의 시민들이 정부에 안전과 관련된 대책을 촉구하는 추모 집회가 주말마다 열린 달이었고 8월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별법 제정과 관련된 시위가 열린 달로 두 시기 모두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함과 동시에 빠른 실종자 수색과 사건 조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의 내용을 담은 정부에 대한 비판이 가세된 대규모 집회가 많이 열린 시점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때 대규모 인원이 참여한 집회나 농성이 열린 장소가 대부분 서울 중심가인 광화문이나 청계천 일대인 것을 고려해볼 때 서울 시내의 교통 혼란이나 집회 참여자들이 가까운 청와대로의 진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 병력이 투입되어 집회 참여자들에게 제재를 가했을 가능성이 크며 이

에 추모 행사 참여자들과 경찰 간의 충돌이 일어났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특히 두 시기에 벌어졌던 집회에서 모두 정부의 사건 해결이나 진상 규명을 강조하는 정치적 함의를 담은 집회가 많았던 만큼 향후 사회적 상실 이후의 추모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에 대해 시민들이 규탄하는 목소리를 낼 때 대규모 집회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경찰과 시민의 물리적 충돌이 아닌 안전하고 타협적인 방법으로 집회를 이어나갈 수 있는 대책에 대해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덧붙여 월별 토픽 분포 중 기념일 반응을 살펴 보기 위하여 세월호 사건 발생 1주기가 있었던 달인 2015년 4월과 2016년 4월의 토픽을 비교분석한 결과 하위 범주, 중범주 토픽 모두 2주기에 비해 1주기에 등장한 토픽의 비율이 3배 가까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사건 발생 1주기에 보다 활발한 추모 활동이 있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사건에 대한 관심이 나 추모 열기가 감소해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 2주기에 드러난 하위 토픽 분포의 특징은 1, 2주기에 모두 고등학생 희생자의 속성과 관련된 집단(교육청, 희생자 친구, 고등학생)의 추모 활동 토픽 비율이 상위권의 등장 비율을 보였다는 점이다. 특히 교육청의 추모 행사와 희생자 또래의 친구들이 주최한 추모 활동과 관련된 토픽은 1, 2주기 모두 높은 등장 비율을 보이는데 이를 통해 교육청과 희생자 또래의 고등학생들이 세월호 추모 행사의 주된 주체 중 하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1주기에는 ‘천주교 추모 미사(T24)’의 등장 비율이 상위권을 차지했는데 이를 통해 사회적 상실이 발생한 이후 1년 정도가 되는 시점까지는 종교적 추모 활동의 역할과 영적 리더십이 상실의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실제로 지금까지 동서양의 많은 종교는 상실로 인한 고통을 인간의 본원적 문제로 여기고 이를 치유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해왔다(Canda & Furman, 2010). 세월호 사건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종교는 상실 이후의 치유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왔으며, 여전히 세월호 사건 추모를 위해 기

독교나 천주교, 불교에서 주최한 기도회나 종교행사가 정기적으로 마련되고 있다(Bang, 2017). 또한 Lim(2016)이 세월호 사건 유가족이 참여한 불교적 추모 행위인 49재에 연구한 결과 유족들은 이러한 종교적 행위를 통해 다양한 감정을 분출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심리적 지지를 얻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자인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지만 상실을 간접적으로 경험한 일반인들 역시 종교를 구심점으로 결집하여 심리적 지지와 치유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종교적 행사에 지원은 상실에 대한 치유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다음으로 1주기에 비해 2주기 추모 활동의 특징적인 부분은 2주기에는 상대적으로 정부의 진상규명과 관련된 토픽의 등장 비율이 높았다는 점인데, 이는 특히 1주기에는 진상규명 촉구와 관련된 토픽 등장 비율이 가장 하위권이었던 점과 관련해 주목할 만한 변화이다. 이를 통해 1주기에는 일반적인 애도 과정에 따라 희생자의 상실에 대한 슬픔과 기억의 메시지가 주로 나타났다면 2주기에는 이와 더불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정부의 대응이나 사회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전면적으로 등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시민들은 사고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사건의 원인을 찾고자 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촉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양상이 3주기 이후에도 지속되는 것인지 계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외국의 사회적 상실 이후 추모 반응에 비해 세월호 사건 이후 추모 반응 중 사회 시스템이나 정부에 대한 비판이 두드러지는 것은 세월호 추모 활동의 특징적인 반응이라 볼 수 있다. 가령 미국의 9/11 테러 사건의 경우 주된 비판의 대상은 사건을 발생시킨 무슬림 세력이었으며, 무슬림 세력에 대한 정부의 대처나 정책에 대해 비판하기보다 오히려 무슬림 세력을 제재하고자하는 정부의 노력에 시민 모두가 동참하는 모습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이후 무슬림에 대한 공포와 혐오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이슬람 공포증(Islamophobia)’이라는 단어가 생겨날 정도로 9/11 테러의 주된 비판은 무슬림 세력에 집중되었다

(Kaplan, 2006). 이처럼 9/11 사례를 통해 시민들이 사회적 상실 이후에 비판하는 주된 대상이 사건을 발생시킨 가해자라는 것을 볼 때, 세월호 사건 이후 국민들이 추모 과정에서 정부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을 하는 것은 정부가 세월호 사건 발생에 원인을 제공했다는 국민들의 의식을 반영하는 것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중범주 토픽의 1, 2주기 등장 비율을 확인한 결과 1, 2주기의 중범주 토픽 등장 비율 순위는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1, 2주기 모두 문화 예술인, 일반 시민, 유가족이 주최한 추모 행사와 관련된 토픽들이 상위 순위를 차지했고 이들은 모두 동일한 상위 범주인 ‘상실에 대한 집단 기억의 공유(H1)’에 포함되는 중범주 토픽들인 것을 통해 세월호 기념일 반응에서도 주된 주제는 정부에 대한 비난이나 정부 기관과의 충돌보다는 희생자에 대한 기억과 상실을 추모하고자 하는 목소리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1, 2주기에서 가장 빈번히 등장하는 중범주 토픽은 ‘세월호 사건 추모 및 기억을 위한 문화예술인의 활동(M4)’인데 여기서도 추모 과정에서 예술적 표현이나 문화 예술인들의 역할이 중요한 것임이 다시 한 번 드러난다. 이에 사회적 상실의 회복에 있어 문화 예술인과 문화 예술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할 수 있다.

반면 가장 1, 2주기 모두에서 가장 낮은 등장 비율을 보인 중범주 토픽은 ‘세월호 추모 행사에서 경찰과 시민의 충돌(M8)’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사건 직후인 2014년 5월에는 상실을 추모하고자 하는 주체들의 추모 행사와 관련된 토픽의 등장 비율보다 경찰의 제재와 관련된 토픽의 등장 비율이 월등히 높았으나 추모 행사가 급격히 증가했던 1, 2주기 기념일이 있었던 달에는 이와 반대로 상실을 추모하는 활동과 관련된 토픽에 비해 경찰의 제재와 관련된 토픽의 등장 비율이 그다지 높지 않았다. 이는 1, 2주기 기념일에 경찰의 추모 활동 제재가 줄어들었다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주로 경찰들은 대규모의 집단적인 추모 활동을 제재하는 데 동원되기 때문에 1, 2주기 기념일에는 대규모 집회뿐만 아니라 경찰들이 제재하기 어려운 소규모의 추모 활동이

나 개인이 주최한 추모 활동이 늘었다고도 볼 수 있다.

또 한 가지 눈여겨볼 점은 1, 2주기의 토픽 분포를 비교했을 때 2주기에는 1주기에 비해 토픽의 등장 비율이 전체적으로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각 중범주 토픽의 등장 비율 분포가 균등해졌다는 점이다. 특히 1주기에 비해 가장 등장 비율의 낙폭이 큰 중범주는 '상실에 대한 집단 기억의 공유'와 관련된 토픽들이었는데 이에 전반적으로 2주기에는 희생자의 상실을 추모하고자 하는 목소리와 사건의 원인 규명 및 대책에 관한 사회적 갈등에 대한 목소리의 비율이 비슷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상실 발생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상실에 대한 슬픔과 애도의 과정에만 머무르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사건의 원인이나 재발 방지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방향으로 추모의 과정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본 사회적 상실에 대한 추모 양상 중 가장 특징적인 것은 사회적 상실에 대한 정부의 역할 및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을 확인한 점이다. 사회적 상실은 단순히 희생자의 상실에 대한 애도로 해결되지 않으며 상실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사건 발생에 대한 진상규명이나 재발 방지를 위한 사회적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여러 선행 연구를 통해 상실을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 중 하나는 사건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며, 이에 상실의 원인을 모르거나 상실한 대상을 수습하지 못할 경우 상실을 극복하는 과정이 훨씬 더디고 어렵다는 것이 확인되었다(Pauline & Boss, 2009; Boss, *et. al.*, 2016). 이에 향후 사건의 원인을 파악하여 다시 동일한 인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있어 정부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비로소 상실 이후의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진상규명, 안전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또 한 가지 중요한 정부의 역할 중 하나는 사람들이 추모를 공유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본 연구결과 및 선행연구들을 통해 확인하였듯이 상실을 유발한 사건 이후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반응

은 상실한 대해 슬픔을 표현하고 이를 기억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Corning & Shuman, 2013; Pivnick, 2011; Auwera & Schramme, 2014), 사회적 상실을 애도하는 과정에서 그 경험을 충분히 표현하고 공유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이러한 상실에 대한 기억을 공유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이 제공되는 것은 상실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Shin(2016)은 과거 사건의 상징성을 현재와 미래에 공간적, 물리적으로 재현한 장소를 '기억 공간(place of memory)'이라고 명명하였는데, 이러한 기억 공간은 사회적 사건으로 인해 생긴 집단 기억(collective memory)을 공유하고 재현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Shin, 2016). 세월호에 대한 대표적인 기억 공간으로 서울 광화문 광장, 팽목항, 안산 화랑 유원지, 안산 단원고 기억교실 등이 있으며 이러한 공간에서 대중은 여전히 희생자에 대해 추모하며 상실로 인한 아픔을 타인과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억 공간, 특히 많은 사람들이 밀집하여 추모 활동을 행한 광화문 광장에서 공권력이 대중의 추모 행위를 제재하면서 두 세력의 충돌이 빈번하게 일어났으며 이는 세월호 사건으로 인한 상실 이후의 또 다른 충격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상실을 경험한 사람들은 상실에 대해 마음껏 드러내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존엄성을 회복할 수 있게 되지만(Herman, 2015) 이조차 계속된 충돌로 인해 온전히 행해지기 어려운 환경이었기에, 이에 정부가 나서서 대중이 함께 사건과 상실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안전한 기억 공간을 마련해주는 것은 상실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자원이 될 것이다. 가령 9/11테러 이후 미국 정부가 건립한 9/11 추모 기념관에는 여전히 9/11 테러를 기억하기 위한 수많은 추모객들이 모여 상실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광화문 광장, 안산과 팽목항에 마련된 분향소, 안산시 교육청의 기억 교실 이외에 대규모의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는 규모의 기념관은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며, 이마저도 몇몇은 철거 위기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이에 보다 안전한 기억공간의 필요성은 갈수록 대두될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첫째, 본 연구는 개인의 애도 과정이라는 기존 사회과학 연구주제의 범위를 확장시킨 연구이며 이를 통해 사회적 상실에 대한 집단의 애도와 추모 행위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기존에 트라우마 사건 관련된 연구들이 주로 증상 위주의 병리와 관련된 연구였던 반면 본 연구에서는 트라우마 사건 이후의 반응을 보다 자연스러운 애도 과정으로 간주하여 이에 대해 현상학적으로 살펴본 의의가 있다. 셋째, 본 연구를 통해 추모에 대한 횡단적 연구뿐만 아니라 2주기 시점까지의 추모 현상을 조사하여 사회적 상실 이후의 추모 과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종단적 연구를 진행하였고 실제로 1, 2 주기에서 드러나는 추모 양상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본 연구는 개인의 애도 과정에서 심리적 회복에 도움이 되는 요인을 넘어서서 사회적 상실 이후에 사회적으로 제공되어야 될 요소들에 대해 고찰할 수 있게 했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니는데 첫째, 본 연구의 자료 수집에 있어 최대한 많은 개별 추모 행사 관련 기사를 수집하고자 했기 때문에 수집된 신문 기사 중 단일 행사에 대해 1-2문장의 서술로만 이루어진 사실 기사 역시 포함되었다. 이로 인해 단일 행사에 대한 보다 풍부한 정보를 담지 못한 기사 역시 분석 대상에 포함되었다는 한계를 가진다. 둘째,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사회적 상실 이후 추모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선행 연구가 거의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추모 현상의 진행 과정과 관련하여 주로 외국의 선행연구에서 드러난 추모 현상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현상을 서술하였다. 이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이전 이전의 사회적 상실과 비교하여 세월호 사건의 추모 양상이 어떠한 특징을 지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점을 바탕으로 한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으로, 본 연구에서 2주기까지의 추모 양상을 확인하였으나 이후의 추모 현상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종단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주기까지의 연

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듯이 특별법 제정과 관련된 갈등 등 정치적 사건의 발생 여부에 따라 추모 양상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 이에 2주기 이후 세월호 인양, 대통령 탄핵, 선거 등 많은 정치적 사건이 일어난 만큼 이후의 2주기 이후의 추모 양상에서 정치적 사건들로 인한 특징적인 패턴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변화 양상을 파악하기 위한 지속적인 종단 연구를 통해 상실로 인한 심리적 회복 과정뿐만 아니라 사회적 상황이 이러한 회복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확인해 보는 것 역시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4S1A3A2038236).

References

- Aizenberg, E. 2007. Argentine Space, Jewish Memory: Memorials to the Blown Apart and Disappeared in Buenos Aires. *Mortality*. 12(2): 109-123.
- Argyrides, M. and J. L. Downey. 2004. September 11: Immediate and Long Term Effects on Measures of Aggression, Prejudice, and Person Perception. *North American Journal of Psychology*. 6(1): 175-188.
- Assanangkornchai, S., S. N. Tangboonngam, N. Sam Angsri, and J. G. Edwards. 2007. A Thai Community's Anniversary Reaction to a Major Catastrophe. *Stress and Health*. 23(1): 43-50.
- Auwers, S. V. and A. Schramme. 2014. Commemoration of the Great War: A Global Phenomenon or a National Agenda?. *Journal of Conflict Archaeology*. 9(1): 3-15.
- Bachmann, C. C. 1964. *Ministering to the Grief Sufferer*. Prentice-Hall.
- Bang, Hyi Jo. 2017. The Power of Communal Healing in Sewol Ferry Square. *Yonsei Journal of Counseling and Coaching*. 7. 81-103.

- Bornstein, P. E. and P. J. Clayton. 1972. The Anniversary Reaction. *Diseases of the Nervous System*. 33(7): 470-472.
- Boss, P., C. M. Bryant, and J. A. Mancini. 2016. *Family Stress Management: A Contextual Approach*. Sage Publications.
- Canda, E. R. and L. D. Furman. 2010. *Spiritual Diversity in Social Work Practice: The Heart of Helping*. Oxford University Press.
- Carlson, C. E. and B. Blackwell. 1978. *Behavioral Concepts and Nursing Intervention*. Lippincott Williams & Wilkins.
- Cavenar, J. O., J. L. Nash, and A. A. Maltbie. 1977. Anniversary Reactions Masquerading as Manic-depressive Illness.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4(11): 1273-1276.
- Cavenar, J. O., J. L. Nash, and A. A. Maltbie. 1978. Anniversary Reactions Presenting as Physical Complaints. *The Journal of Clinical Psychiatry*. 39(4): 369-374.
- Cho, Myung Hyun, Jae Yoon Chang, Kyung Ryu, and Ju Il Rie. 2015.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Depression, Future Time Perspective, Active Aging on Emotional Change after Indirect Disaster Experience among the Elderly.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21(4): 671-696.
- Corning, A. and H. Schuman. 2014. Collective Memory and Autobiographical Memory: Similar but not the Same. *Memory Studies*. 7(2): 146-160.
- Daly, E. S., S. B. Gulliver, R. T. Zimering, J. Knight, B. W. Kamholz, and S. B. Morissette. 2008. Disaster Mental Health Workers Responding to Ground Zero: One Year Later. *Journal of Traumatic Stress*. 21(2): 227-239.
- Forrest, T. R. 1993. Disaster Anniversary: A Social Reconstruction of Time. *Sociological Inquiry*. 63(4): 444-456.
- Freud, S. 1920. *Beyond the Pleasure Principle*. Ibid: v.18.
- Freud, S. and J. Breuer. 1895. *Studies on Hysteria*. se, 2. London: Hogarth.
- Gabriel, M. A. 1992. Anniversary Reactions: Trauma Revisited. *Clinical Social Work Journal*. 20(2): 179-192.
- Han, Hyo Jeong, Min Kim, and Sang In Nam. 2017. The Effects of Intentional Rumination, Self-Disclosure and Cherishing Activities of University Students Involved in Cherishing the Memory of SEWOL Ferry Disaster on Their Indirect Posttraumatic Growth.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4(6): 179-204.
- Heart, M. Y. H. B. 1999. Gender Differences in the Historical Trauma Response among the Lakota. *Journal of Health & Social Policy*. 10(4): 1-21.
- Herman, J. L. 2015. *Trauma and Recovery: The Aftermath of Violence-from Domestic Abuse to Political Terror*. Hachette UK.
- Hilgard, J. R. 1953. Anniversary Reactions in Parents Precipitated by Children. *Psychiatry*. 16(1): 73-80.
- Horowitz, M. J. and G. F. Solomon. 1975. A Prediction of Delayed Stress Response Syndromes in Vietnam Veterans. *Journal of Social Issues*. 31(4): 67-80.
- Jeong, Eui Moon. 2015. Indirect Trauma Response by Media Exposure of Sewol Ferry Disaster in University Students in Korea: Trauma-related Negative Beliefs as Moderating Variables. Master's Thesis. Daegu University.
- Jordan, K. 2003. What We Learned from the 9/11 First Anniversary. *The Family Journal*. 11(2): 110-116.
- Kaplan, J. 2006. Islamophobia in America?: September 11 and Islamophobic Hate Crime 1. Terrorism and Political Violence. 18(1): 1-33.
- Kast, V. 1988. *A Time to Mourn: Growing through the Grief Process*. Daimon.
- Kwak, Eun Hee. 2016. A Community of Sorrow and Writing from the Disaster. *The Journal of the Humanities*. 77: 91-116.
- Lee, Heung Pyo, Yun Kyeung Cho, Jae Ho Lee, and Hong Seock Lee. 2016. The Psychological Consequences of Indirect Trauma Exposure through the News on the Sewol Ferry Disaster.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22(3): 411-430.
- Lee, Soo Sang. 2016.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Topic Modeling for the Book Report Text.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7(4): 1-18.
- Lin, Hae Young. 2016. A Study on the Mourning Experience of the Bereaved Family Participated in Forty Ninth Day Funeral Commemoration. *Korean Studies Quarterly*. 39(2): 237-271.
- Marín, Beristain C., D. Paez, and J. L. González. 2000. Rituals, Social Sharing, Silence, Emotions and Collective Memory Claims in the Case of the Guatemalan Genocide. *Psicothema*. 12(Su1).

- Meza, D. 2015. *Topic Modeling in R*. <http://davidmeza1.github.io/2015/07/20/topic-modeling-in-R.html>.
- Moon, Hee Jeong, Hye Sun Joo, and Hyun Nie Ahn. 2016. An Analysis of the Commemorative Phenomenon about Traumatic Loss Caused by a Disaster- Case of Sewol Ferry Disaster. *Crisisonomy*. 12(6): 15-31.
- Morgan, C. A., P. Kingham, A. Nicolaou, and S. M. Southwick. 1998. Anniversary Reactions in Gulf War Veterans: A Naturalistic Inquiry 2 Years after the Gulf War.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1(1): 165-171.
- Morgan, III. C. A., S. Hill, P. Fox, P. Kingham, and S. M. Southwick. 1999. Anniversary Reactions in Gulf War Veterans: A Follow-up Inquiry 6 Years after the War.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6(7): 1075-1079.
- Pauline, B. and P. Boss. 2009. *Ambiguous Loss: Learning to Live with Unresolved Grief*. Harvard University Press.
- Pivnick, B. A. 2011. Enacting Remembrance: Turning toward Memorializing September 11th. *Journal of Religion and Health*. 50(3): 499.
- Salamon, K. K. 2016. Post-9/11 America: Poetic and Cultural Responses. Ph.D. Dissertation. Univerza v Mariboru (Slovenia).
- Shin, Hae Ran. 2016. The Territorialization of Memory: The Making of Place of Memory for Sewol Ferry Accident. *Space & Environment*. 57: 115-154.
- Shim, Sang Min, Seong Hee Lim, You Jeong Jin, and Yun Kyeong Choi. 2015. Psychological Factors Influencing Social Participation after Sewol Ferry Disaster. *Korean Psychology Association Conference Sourcebook*. 2015(8): 205-205.
- Sohn, Seung Hee. 2014. Study of Indirect Trauma and Related Variables by Social Traumatic Event to the Adolescence: Focusing on the Sewol Ferry Disaster.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1(10): 269-294.
- Williams, B. G. 2000. Commemorating "The Deportation" in Post-Soviet Chechnya: The Role of Memorialization and Collective Memory in the 1994-1996 and 1999-2000 Russo-Chechen Wars. *History & Memory*. 12(1): 101-134.
- Yehuda, R. and J. LeDoux. 2007. Response Variation Following Trauma: A Translational Neuroscience Approach to Understanding PTSD. *Neuron*. 56(1): 19-32.
- Korean References Translated from the English*
- 곽은희. 2016. 슬픔의 공동체와 재난의 글쓰기. *인문연구*. (77): 91-116.
- 문희정, 주혜선, 안현의. 2016. 재난으로 인한 외상성 상실에 대한 추모 현상 분석. *Crisisonomy*. 12(6): 15-31.
- 방희조. 2017. 세월호 광장의 공동체적 치유의 힘. *연세상담코칭연구*. 7: 81-103.
- 손승희. 2014. 사회적 사건에 의한 청소년의 간접외상 및 관련 요인 연구. *청소년학연구*. 21(10): 269-294.
- 신혜란. 2016. 기억의 영토화: 세월호 기억공간 형성과정을 사례로. *공간과 사회*. 57: 115-154.
- 심상민, 임성희, 진유정, 최윤경. 2015. 세월호 사건 이후 사회적 참여에 미치는 심리적 요인.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5(8): 205-205.
- 이수상. 2016. 독후감 텍스트의 토픽모델링 적용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7(4): 1-18.
- 이흥표, 최윤경, 이재호, 이흥석. 2016. 세월호 뉴스 노출을 통한 간접 외상의 심리적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2(3): 411-430.
- 임해영. 2016. 49재에 참여한 유족들의 애도 경험 연구. *정신문화연구*. 39(2): 237-271.
- 정의문. 2015. 세월호 사건 매체노출이 대학생들에게 미친 간접외상에 대한 연구: 외상관련 부정적 신념과 회복탄력성을 조절변인으로.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명현, 장재운, 유경, 이주일. 2015. 재난 간접 경험 후 노인들의 정서 변화 양상.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1(4): 671-696.
- 한효정, 김민, 남상인. 2017. 세월호 참사 추모활동 대학생의 의도적 반추, 자기노출, 추모활동이 간접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4(6): 179-204.

집단 트라우마 사건으로 인한 사회적 상실 이후의 추모 반응 연구

– 세월호 사건을 중심으로 –

국문초록 본 연구는 트라우마 사건으로 인한 사회적 상실을 경험한 이후 대중의 추모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비교적 최근에 발생한 대규모 사회적 상실인 세월호 사건의 추모 반응에 대한 사례 연구를 실시하였다. 특히 기념일 반응 연구의 일환으로 사건 1,2주기에 추모 반응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비교하기 위해 세월호 추모 행사와 관련된 신문기사를 수집하여 토픽 모델링 방법을 통해 기사에서 가장 빈번히 드러나는 25개의 토픽을 추출하여 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세월호 추모 행사에서 등장하는 가장 주요한 토픽은 ‘상실에 대한 집단 기억의 공유’였으며, 사건 발생 이후 2년 동안 토픽의 등장 비율이 가장 높았던 달은 사건 1,2주기가 있었던 달이었다. 또한 사건 1주기에는 희생자에 대한 추모와 관련된 주제가 주로 등장했다면 2주기에는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토픽의 등장 비율이 증가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사회적 상실 이후의 회복에 있어 상실과 관련된 이야기를 타인과 안전하게 드러내고 공유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의 중요성이 드러났으며, 특히 사건과 관련된 기념일에 이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두드러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 집단 트라우마 사건, 사회적 상실, 추모, 기념일 반응, 세월호 사건

- Profiles **Hee Jeong Moon** : She received her B.A. and M.A. from Ewha Womans University, Korea in 2016. She is a doctoral student of the department of psychology at Ewha Womans University. Her interesting subject is collective trauma(tofreeway@naver.com).
- Hye Sun Joo** : She is a research professor of the department of psychology at Ewha Womans University. Her interesting subject and area of research and education is counseling psychology & Trauma(healingtrauma@daum.net).
- Soo Sang Lee** : He received his B.A., M.A. and Ph.D. from Pusan National University, Korea in 1997. He is a professor of the Department of Library, Archive and Information Studies at Pusan National University in which he has taught since 2005. His interesting subject and area of research and education is digital library, information search and language network analysis. He has published about 50 articles in journals and written 5 books(sslee@pusan.ac.kr).
- Hyun Nie Ahn** : She received her Ph.D. from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USA in 2001. She is a professor of the Department of Psychology at Ewha Womans University. Areas of her interest are counseling psychology methodology, ethics, and recovery from trauma(ahn12@ewha.ac.kr).

Appendix 1. Classification of topic category

Low-category topics (T)	Medium-category topics (M)	High-category topics (H)
T5. Online PRs of goods for ferry Sewol commemoration T13. Picture exhibition for victim commemoration with Jeju-do residents' participation T15. Condolatory calls for ferry Sewol victims by the public T17. Performances for ferry Sewol victim commemoration by domestic and international sports teams	M1. Commemorative activity for victims by citizens in general	H1. Sharing of collective memory of loss
T4. Buddhist event for ferry Sewol commemoration in its 1st anniversary in Gwangju T11. Protestant services and cultural festivals for commemoration T24. Catholic services for commemoration	M2. Religious rituals for souls of victims by religious people	
T9. Establishment of commemoration center for ferry Sewol victims in general in Incheon T14. Creation of local residents' space for ferry Sewol victim commemoration	M3. Creation of commemorative space to memorize ferry Sewol victims	
T7. Gift donation for victim commemoration by entertainers T8. Documentary film production regarding ferry Sewol sink T18. Presentation of commemorative literary works and holding of commemorative performances by cultural people and artists T19. Release of records and performances for ferry Sewol commemoration by musicians	M4. Activity to commemorate and memorize ferry Sewol sink by cultural people and artists	
T3. Commemorative event by victims' siblings and peers T6. Book concert for victim commemoration T16. Joint memorial service on festive day by bereaved families and citizens T10. Commemorative concerts and fund-raising activity with bereaved chorus' participation	M5. Commemorative activity held and participated by bereaved families	
T20. Demand for revising special law on ferry Sewol by bereaved family association T23. Performance for demanding special law enactment in Jeolla Province	M6. Demand for special law enactment and revision	H2. Social conflict on investigation of cause of accident and measures
T21. Commemorative cultural festival for demanding discovery of truth in Gyeongsang Province T25. Regular commemorative gathering by Koreans abroad	M7. Citizens' commemorative event to criticize government's coping with accident	
T12. Citizen-police collision in commemorative gathering	M8. Police-citizen collision in ferry Sewol commemoration event	
T2. Regular commemorative musical performance by victims' friends T22. High school students' commemorative cultural festival in 2nd anniversary of ferry Sewol sink	M9. Commemorative activity by victims' friends and peers	H3. Commemorative activity by groups strongly connected with victims' characteristics
T1. Victim commemoration duration set by education office	M10. Ferry Sewol commemoration activity by public institutions	